

군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농림부 최종 승인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들녘 경영체 육성 등 향후 5년간 국비 연계 사업 신청자격 부여 혜택

군산시가 식량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5년(2019-2023년)의 쌀과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계획 수립 및 적정투자 계획,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를 통한 농업 비전 마련을 목표로 수립됐다.

지난 3월부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과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RPC 및 DSC 7개 농협과 들녘 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및 식량관련부서 실무책임자 등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통상적인 행정 주도의 획일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과 지역농협 및 식량관련 조직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이번 식량산업 종합계획이 농식품부로부터 '논타작물 재배 목표량 50%이상'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다.

이에 시는 논타작물 재배 목표량인 899ha의 50%인 450ha 이상 논 타작물 재배조건을 이행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다각화) 등 국비 연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문영엽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승인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군산시의



군산시가 식량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5월 열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대책회의. <군산시 제공>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 도전

관리지역 17곳 특별요원 배치... 피서객 안전 도와

순창군이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 관리 요원 배치를 완료하고 인명사고 제로에 도전한다. <사진>

순창군은 지역 7개면 17곳의 물놀이 특별 안전관리지역에 34명의 물놀이 안전관

리 요원을 배치해 피서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다고 8일 밝혔다.

물놀이 특별 안전관리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하천 중 과거에 익사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은 쌍치면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구림면이 4곳, 유등·풍산·북흥이 2곳씩이며, 동계·적성 1곳이다.

이곳에는 안전관리지역당 2명씩을 배치해 월-목요일은 1명이 근무하고, 금-일요일은 2명씩 조를 이뤄 근무할 예정이다. 공휴일도 2명이 근무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

익산시, '새뜰마을 사업' 마무리 단계

KTX 익산역 주변 관사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익산시는 KTX 익산역 주변 관사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관사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집수리,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마을문화놀이터, 건강백세교실,

마을누리사랑방, 마을창업공작소 등의 프로그램과 각종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엔 실시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주민의 개개인의 역량 고취와 지속적으로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제를 조직화하는데 집중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개조 고창군, 가구당 380만원 지원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형에 맞는 시설 확충과 주택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구에는 38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2019년 4인 기준 461만3000원) 이하 장애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장애인의 종류·등급과 주택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장실 개조, 출입구 경사로 보수, 보조 손잡이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보수 사업 등이 진행된다.

군은 지난 3월 우선순위에 따라 17가구를 선정해 현재 12가구는 공사를 완료했고, 5가구는 진행 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사는 착한 여인' 무대 오른다

정읍시립국악단, 13~14일 예술회관 대극장

정읍시립국악단의 창작 소리극 '정읍 사는 착한 여인(주호중 연출·사성구 작·포스터)'이 13일과 14일 오후 4시 정읍시 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정읍 사는 착한 여인 공연은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謠)'를 모티브로 분노와 울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뼈아픈 근대사를 기발한 상상력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풀어낸 대서사시다.

주호중 단장이 연출하고 사성구 중앙대 교수가 대본을 썼다.

한승석 중앙대 교수가 작창을, 박성호 국립국악원 수석이 안무를 맡았다.

주인공인 '정월(井月)' 역에는 시립국악단원 김유빈이 맡는다.

'정읍의 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주인공 정월은 4살이던 동학전투 때 일분군이 쓴 총탄 파편이 머리에 박힌 이후로,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울음이 터지거나 화를 내지 못하는 기이한 착한 여인으로 성장한다.

우리민족의 울분과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던 일제 격동기에 울지도 분노하지도 못하는 바보같이 착한 여인 정월의 그 아말로 속 터지는 일생은,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비극을 더 처절하게 부각시키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풍자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주인공 정월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녀(熊女)처럼 곳곳이 어둠의 세월을 살아 견뎌온 우리 민족에 대한 은유이며 상징이다.

정월이 달님을 보며 부르는 '정읍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해방의 노래'이자 '희망가'이기도 하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공연으로 공연 당일 선착순 입장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호응

군산시가 시민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총 5503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841건을 각각 처리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 받는 제도

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세 등에 대해 상속인이 전국 시·군·구 및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자 모집

남원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1가지 이상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 교육과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별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미역, 분유, 우유 등)을

매월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남원시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산부, 수유부, 66개월 이하 유아의 영양문제 보유자 중 선정한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양결핍을 막고 미래 건강 자원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중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